

울산, 석유화학 발전 로드맵 구축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착수 ... 정밀화학기업 및 신소재 산업 육성

울산시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6월16일 울산시에 따르면,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2009년 들어 울산 석유화학단지협의회 및 개별 기업들과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총괄위원회 등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2010년 5월 말까지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로드맵 수립 과정에는 지역 석유화학계열사 가운데 74사와 석유화학공단협의회,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고 로드맵이 완성된 후에는 정부와 협의해 예산투입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울산시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의 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따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과 원료 다변화 방안, 에너지 저감 구조로의 개선, 물류체계 개선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밀화학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집적화, 융합화학 신소재산업 육성 방안 등도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단지가 대부분 시설 노후와 중국 및 중동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구조 고도화와 첨단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6>